

나만 없애버리기만 하면 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길을 걸었다

세상에서도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를 따라서 가면 정확하고도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자가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비결, 하나님 되는 비결, 영생 얻는 비결, 죄를 해결하는 비결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진리를 알 때까지 어떤 인간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밀실 안에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다. 이제 가족을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다. 나를 의식하지 말아라. 나를 의식하는 것이 바로 음란죄다.” 이러한 말씀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죠?

생수 연결이 끊어지면 죄라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은 생수 연결이 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생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생수 연결이 되면 몸이 가볍고 이제 입안에서 뱀속까지 시원하게 마치 찬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뚱뚱해져서 뜨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체험을 하면서 사나 항상 몸이 가볍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잘못 한다든지, 보지 못할 사람을 본다든지 하면 생수 연결이 끊어져요. 그걸로 이 사람은 분별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쉬웠겠죠? 이렇게 가르침

을 받아서 한다면 이 사람 같으면 이제 21일이면 끝나요. 아시겠어요? 21일이면 의인이 돼 버려요. 이 사람은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이 체험으로서 은혜 연결이 끊어지면 ‘아,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분별해가지고 하려나? 더딘 거죠?’

내가 행하는 건 다 죄다

사실은 나를 의식하려면 의식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가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에게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길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걸 해 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건 뭐냐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좋았을까, 이 사람 스스로 노력을 했을까? 하나님한테 좋았어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하면 음란죄가 된다는 것을 해와 이간자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 스스로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음란죄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건 다 죄야. 이걸 이 세상 종교가들이 몰라요. 이 건 엄청난 학설이예요. 이게 바로 죽지 않는 학설이예요.

내가 뭘 생각해도 피가 섞여요. 내가 기도해도 피가 섞여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예요. 내가 하면 죄가 되고 내가 없애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의 근본이 나요. 마귀가 나오, 사망의 영이 나오, 원죄가 나오, 선악과가 나가 되고고 그러고 나라는 것만 없애지면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를 싹 없애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값 비싼 학설



구세주 조희성님

정확하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걸 봐도 틀림없는 성경의 주인공, 우주의 주인공이 틀림없는 거죠? 인간의 탈을 벗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죽음의 탈을 벗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고통의 탈을 벗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가르쳐 줘요? 그걸 값으로 따지면 우주덩어리만 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건 엄청난 값비싼 학설이라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되고,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도 되고, 하나님 되는 비결의 학설도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학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 땅위에 있는 좋다는 대학, 좋다는 대학원을 만 개를 가서 공부해도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나만 없애지면 안 죽어. 나만 없애지면 하나님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포인트가 나야. 나를 청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되는 비결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비결이요, 영생하는 비결이요, 고통을 당하려 당할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되고, 기쁘게 사는 비결도 되고, 병도 안 걸리는 비결도 되는 거죠?

나라는 주체의식만 죽여 없애라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영이요, 사람의 생명이 되는 피를 썩히는 영이 나라는 의식이고, 나라는 의식만 제거해 버리면 이제그대로 영생이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승리제단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승리제단에 나오려면 나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나와 더불어 싸우려면 내 생각을 시간 시간이 지워야

돼요. 내 생각을 지우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영이 점점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으로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이걸 실천 안 하는 자는 안 돼요.

나를 짓기하고, 나를 완전히 짓밟고, 나라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생활은 누가 기본 나쁜 소리, 누가 내게 칭찬한 말을 한다든지,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에 화가 브룩 나는 것은 나라는 게 살아서 그래. 한 번 그렇게 자존심을 부릴 때마다 마귀의 영이 강해져요. 신경질 내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대마귀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라는 게 마귀라는 말을 들었으면, 신경질이 나올까? 나올 수가 없어. 신경질도 안 나오고 화도 나올 수가 없어요.

화가 나고 신경질 날 때에 그 화도 나오는 것을 제지하고 신경질도 제지하면 마귀가 약해지는 거야. 이 사람이 밀실에서 젊은 사람한테 따귀를 맞았어요. 내가 주먹만 한 방 같으면 그냥 쪽 뺨을 정도의 젊은 청년인데 따귀를 맞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나라는 게 죽으니까 화가 안 나오. 나라는 게 죽으니까 따귀를 때려도 화가 안 나. 때려서 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니까 마귀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승승장구로 영생이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승리제단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승리제단에 나오려면 나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나와 더불어 싸우려면 내 생각을 시간 시간이 지워야

나라는 생각이 내려야 날 수 없는 경지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하고, 아무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때리고 그래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를 않아야 내가 죽는 거예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욕을 먹고, 무슨 매를 맞아도 이제그대로 나라는 것이 화가 나오려고 할 때에 그대로 헬기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화가 나오는 걸 제재하게 되면 나라는 의식의 마귀가 죽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영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악의 영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요, 유전죄요, 자범죄가 되고고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이 내려야 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상하게 가르쳐주는데 의인이 안 된다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예요. 의인되는 비결을 이렇게 소상하게 안내해 해 주고 있는데도 이것을 듣고도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귀종자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간증담 말씀할 때에 입에다 재갈을 물고 싶었다고 했죠. 누가 묻는 말도 좀처럼 답변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답변이나 하지 그 외에 쓸데없는 말은 답변하지 않았어요. 입에다 재갈을 물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내가 말하면 바로 나라는 의식의 영이 점점 강해져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투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의인이 안 돼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나 전도할 때에 말을 하는 거지, 너절하게 죄인 시절의 과거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피가 섞고 말하는 사람도 피가 섞는 거예요. 포인트가 나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1992년 2월 1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7) 외아들을 바치는 마음

소돔과 고모라가 유향불로 잿더미가 된 후 아브라함은 마브레의 천막을 걸어 헤브론에서 서남쪽 5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그랄로 이사 왔습니다. 그랄로 이사 오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늙은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창17:17).

그리고 몇 날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마브레 천막에 방문하여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년이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재차 주시시켰습니다. 이때 사라가 남편은 늙었고 나 자신은 노쇠하여 경수까지 끊기거늘 어찌 임신할 수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중으로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도 웃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갖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브레 방문에 이어 곧바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 그 참혹한 현장을 생 각하면서 아내 사라와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의 마브레에서 그랄로 이사 오게 된 배경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우울한 상념을 떨쳐주기 위한 하나

님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와서 아내 사라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육으로 난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식으로 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갈4:28).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백 세요, 사라가 구십 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란 ‘그가 웃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이삭은 튼튼하고 착하게 자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물론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기쁜 웃음을 주는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젖을 땔 때에는 아브라함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 큰 잔치까지 벌였습니다(창21:8).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내 네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앞에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네 중심을 보았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의젓한 아십대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외아들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17) 외아들을 바치는 마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자신의 소유로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삭이 정녕코 성령으로 따라 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이삭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며, 단지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이삭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도로 찾아가겠다는데 당연히 반반해아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제단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창 22:7)

주저함도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침 동녘이 틀 무렵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재빨리 뛰어났습니다.

“예,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이삭! 오늘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빨리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자.”

아버지의 마음속을 알 길이 없는 이삭은 늘 순종하는 버릇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태울 장작을 나귀에 싣고 이삭과 종 두 사람을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사흘이나 걸려서 모리아 산 기슭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에 이르자 아

브라함은 두 종을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장작을 스무 살 된 아들 이삭의 등에 짊어지운 다음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이삭과 함께 예배드릴 산꼭대기로 올라 갔습니다. 이삭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제단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다가 영겁결에 대답했습니다.

“이삭!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거야!”

산 위에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은 다음 아브라함은 아들이삭을 꺼내고 이삭의 이마에 그의 오른쪽을 살며시 대었습니다. 그제야 이삭은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조용히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팔다리를 꿰뚫은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 놓고 시퍼런 칼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이 순간 모리아 산이 울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앞에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네 중심을 보았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 솥양이 수풀에 붙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솥양을 끌어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의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고 하여 ‘여호와 아레라’고 명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창 22:12)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 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점령당한 이후로 아담이 사람으로 전락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되찾기 위해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마귀를 이길 힘과 지혜를 여러모로 키워왔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이행함으로써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안철라